

나는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져라

오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 :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먼저 자화상이란 무엇인가요?

자화상이란 마음 속에 심기워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마음 속에 심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하는 자화상을 자기의 마음속에 심으면

그 사람은 운전을 빨리 하게 됩니다. 밥을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뜨거운 밥은 찬물에 말아 훌훌 들이키게 됩니다.

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자화상을 마음에 심은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기어히 그 목표를 성취해 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생각을 자기의 생각 속에 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어떤 큰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그만 실수로 냉동실 문이 잠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냉동실은 밖에서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냉동실 안에서 동태가 되어 죽을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밤이라 아무도 사람도 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만 실망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대로 죽는구나, 내 인생은 끝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은 얼어 붙겠지.
점점 추워지고 있네,
몸이 점점 얼어오고 있네. 아! 나는 죽었다,” 하면서
자꾸 자신에게 “몸이 얼고 있다. 나는 얼어 죽는다” 하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른 사람이 와서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얼어 붙고 있다. 나는 얼어 죽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얼어 죽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이상하게도 power 가 없어서
냉동실은 바깥의 기온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것이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화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화상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자화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동물 중에서 가장 힘센 동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힘센 동물은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소도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다른 동물도 많이 만드신 후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라는 것인가요?

힘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생각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지구 상의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생각으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물체가 공중을 떠 갑니다. 무엇의 산물입니까?

생각의산물입니다.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무엇의 산물입니까?

생각의 산물입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잠 23:7)>.

잠언 23:7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가가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무리 풍채가 대인같아도 생각이 소인이면, 그 사람은 소인이고, 아무리 소인이라도 생각이 대인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대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더 커졌습니다.

“어떤 놈이 동물의 왕인 나보다 더 큰 소리를 가지고 있지?” 사자는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은 사자는 다음과 같이 중얼대었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저 동물은 아마 나보다 몸이 10 배쯤 클 거야. 그 놈의 발톱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만 하겠지. 이빨은 저기 저 바나나보다도 더 클거구 말이야. 나를 만나면 이놈 사자야 내가 너를 혼내 주리라 하면서 막 소리를 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자는 털썩 자리에 주저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개구리 우는 소리였습니다.

개구리는 몸집은 작아도 우는 소리는 아주 크거든요.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개구리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여, 산천이 떠나갈 것처럼 울어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개구리 우는 소리에 덜덜 떨며 우는 사자의 모습이!

아무리 사자로 태어났어도 생각을 잘못하면,

사자도 개구리 앞에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금융 불황으로 인해 얼어 붙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가슴이 철렁 철렁합니다.

이러할 때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받아 들이나 하는 것에 따라

적극적 자화상이 생기고 부정적 자화상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안돼, 불가능해” 하면 주저 앉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개구리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울게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한 번 해보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이 적극적 자화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큰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적 자화상을 가지고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교회 장래등,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용기보다는 낙심을 주려고 달려 듭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빅터 후랭클 Victor E. Frankle)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 차 대전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심리학자로서 죽음의 기로에 서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늦게 죽고 어떤 사람은 왜 빨리 죽는가에 대해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실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 하루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용소 생활을 잘 견디고 버텨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끊임없이 심은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비록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 안에 있었지만,
적극적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이런 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존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난 곧 이곳을 나가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다. 나는 행운아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대로 살아 남아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었고,

그 후 실존적 의미의 정신 분석 요법(logo-therapy, 의미요법)을 창안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죽음의 행렬 뿐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불황이라는 풍랑위에 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 위에서 벌벌 떠는 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은,

100%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법을 터득치 못한 사람은 죽는 것이고,

이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면

실제로 죽음은 손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아 나간다 하는 자화상을 심으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부여지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희망과 힘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장벽 앞에서 그것을 뛰어 넘는 길은
마음의 자화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사람의 자화상이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자화상을 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 자화상을 갖도록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라고 고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 사라!” 하고 부를 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사라에게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자기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부를 때,
사라의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자기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임없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인격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나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하는
자화상이 점점 뚜렷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뚜렷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 모습이 자신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 집니다. 그래서 이 꿈속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꿈이 내가 되고 내가 꿈이 되었습니다.
이 자화상이 없으면 살 맛도 안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에게 꿈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 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9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덤 속에 들어 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족은 커녕 씨받이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상대방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 자화상은 그들의 삶이고 삶의 목표이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물러 서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환경이 뭐라 하든지 물러 서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 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라 합니다.

99 세가 된 자기가 아들을 난다는 말에 사라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하십니다.

창세기 18 : 14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때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믿음 가운데 알았습니다.

<자화상이 태어남>

때가 되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 세에 처음 약속하신 후 25 년 만에,

길고 긴 믿음의 여로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던 자화상이 태어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4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 4 :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 :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환경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런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의 능력을 통하여 먼저 자화상을 변화시킵시다.
그리고 새 일을 성취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새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